

지역 소식통

김제시보건소,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 강화

김제시 보건소(소장 송윤주)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진 만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강화에 나섰다.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방문보건팀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또는 전화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날씨 정보 문자 발송, 여름철 건강 수칙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비대면 건강관리 상담 시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외출 자제 △규칙적인 수분 섭취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등 건강수칙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콜드쇼, 쿨스카프 등을 배부해 시민들이 여름철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소방서, 휴양시설 소방안전교육 실시

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을 즐기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지난 5일 모악산 캠핑파크(김제시 금산면)를 찾아 휴양시설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 컨설팅과 소방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번 소방안전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캠핑장 내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화재 시 피난계획의 적합성과 소방차량 출동 시 장애요인 여부 확인 등 직접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차단하고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방의식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관계자 및 피서객을 대상으로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화재 대피방법 및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을 교육을 통한 생활 속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명품 딸기 위한 '꽃눈분화 기술서' 발간

농가들이 알기 쉽게 정리

시설딸기 우량묘 생산·꽃눈분화 판별 서비스 받은 농가 반응 등 소개

완주군이 딸기 농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량묘 생산과 꽃눈분화 판별 기술'을 정리한 전문 기술서를 발간했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딸기 꽃눈분화 검경을 해오면서 정식시기 판별 기술을 진보시켰으며, 2,000장이 넘는 현미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기술서는 완주군농업기술센터가 농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그동안의 노하우를 집적화했다.

기술서 발간으로 전국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농가에 알맞은 정식시기를 알려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서는 1장 시설딸기 재배지역과 우량묘 생산 2장 딸기 꽃눈분화의 환



경요인과 촉진 기술, 3장 딸기 꽃눈분화 판별 기술, 4장 딸기묘의 꽃눈분화 사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1년 꽃눈분화 판별 서비스를 받은 농가의 반응도 소개하고 있다.

딸기는 꽃눈분화가 이루어진 후 정식하는 것이 중요해 꽃눈분화가 안 된 딸기묘를 정식하면 식물체가 웃자라면서 꽃눈분화와 딸기수확이 늦어지게 된다.

반대로 꽃눈이 분화된 딸기묘의 정식 시기가 늦어지면 전계염수가 적어 초세가 불량해지고 1회방 수량도 줄어든다. 꽃눈이 분화된 딸기를 제때 정식하는 것이 딸기 초세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수량도 늘릴 수 있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21년 8월과 9월 꽃눈분화판별을 받은 144농가를 조사한 결과 1회방 수량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7농가는 1회방 수량이 30%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39농가는 20~30% 증가, 21농가는 10~20% 증가, 6농가는 10% 이상 증가 효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구진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 기술서가 완주군 딸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딸기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실용기술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이영석 개발사업단장이 8일 새만금 신항만, 수변도시, 수상태양광 예정지, 동서도로 등 주요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새만금 국가사업 진행상황 파악

이영석 김제시 개발사업단장, 새만금 개발 현장 방문

김제시 이영석 개발사업단장이 8일 새만금 신항만 수변도시, 수상태양광 예정지, 동서도로 등 주요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새만금 국가사업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김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점·현안사업의 현장 방문이었다.

이영석 단장은 "새만금 개발지역 둘러보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미비한 기반시설 설치물건의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며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새만금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구진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 기술서가 완주군 딸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딸기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실용기술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이석 김제시 안전개발국장, 도시재생사업 현장 적극행정

김제시 이석 안전개발국장은 지난 4일 김제시 요촌동 사업지구등 3개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소신을 가지고 소통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이석 안전개발국장은 요촌동 성산지구, 신흥지구 도시재생사업현장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제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2018~2020년 3년 연속 공모신청(요촌동-18년, 성산지구-19년, 신흥지구-20년)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으며, 총사업비 1,047억원(국비 450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김제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학습관리시스템 체계화, 합격에 큰 도움"

김제 공무원시험준비반 출신 김영진 장수의료원 주무관

김제시지방자치재단(이사장 정성주)은 8일 장수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진 주무관(29)이 첫월급 중 일부인 100만원을 지역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쾌척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주무관은 김제시 지방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에서 2년 9개월이라는 수험생활을 보낸 끝에 2022년도 제2회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올해 7월 공직에 입문했다.

김 주무관은 노량진의 전문 강사들이 직접 김제에 내려와 강의하는 직장 프로그램과 전 과목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 등 모든 과정이 무료로 진행되는 덕분에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특히 김제 지방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만의 철저한 수험생 관리, 뛰어난 실력의 교수진, 반복적인 테스트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주무관은 "수험생활 동안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오롯이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주신 김제시에 감사드리며, 제가 받은 혜택을 지역 후배들을 위해 돌려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이사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도움을 되돌려준 뜻깊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자라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은 직장 과정과 관리형 독서실 과정, 전 과목 동영상 강의 과정 등 3-track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3년간 63명(2019년에 11명, 2020년 23명, 2021년 2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운영 4년 차인 올해 34명의 최종합격자와 3명의 필기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어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미래의 내 직업은?" | 완주 드림스타트 아동들, '꿈꾸는 아이' 서 직업체험

완주군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직업 체험 기회를 갖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드림스타트 아동 50명은 최근 상관면에 위치한 '꿈꾸는 아이'에서 직업체험을 가졌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동들이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고 미래의 꿈을 설계해 보도록 했다.

꿈꾸는 아이에는 진단의학이나 요리사와 같은 전통적인 직업뿐만 아니라 피지컬코딩, 스마트팩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까지 12개의 다양한 체험관이 있었고 이중 아이들은 흥미있는 5개를 선택해 직업체험에 참여했다.



체험활동에 참가한 한 아동은 "평소에 웹툰을 좋아하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직접 웹툰작가처럼 이야기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다"며 "방학이 타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여기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하니 너무 재밌고 좋았다"고 말했다.

유지숙 교육이동복지과장은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미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이 인생의 목표를 갖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